안녕하세요? SK건설 보건관리자 한순희입니다

한 순 희 • SK건설 부장

소속 회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SK건설 본사 품질안전환경 본부 내 HSE(보건안전환경)팀에서 현장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한 기획과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SK건설은 '12년 5월 국내현장 보건경영을 선포하면서 건설업계 보건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5년 건설업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을 앞두고 '13~'14년 대형현장 중심으로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및 건강관리실 운영 등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한 시범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간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육아와 가사로 조금은 긴 휴직기간을 거쳐 재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SK아파트 신축 현장 보건관리자로 채용되어 산업간호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산업보건에 대한 경험도 없이 그나마 학교에서의 한 학기 강의 경험에 의존하여, 전임자의 업무를 따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건설업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건설현장에 전담 보건관리자가 없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건강권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HSE팀에서 보건관리 지침, 현장 보건활동 프로그램 등을 계획해도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하고 결과를 산출해내기가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점은 건설근로자의 유동성 때문에 지속적인 보건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일을 하시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건설 현장의 보건관리자로 일할 때, 낯선 건설현장에서 그리고 조금은 거친 면도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가벼운 상처도 세심히 보살피고, 현장순회하며 상처는 괜찮아졌는지 기억해 주며 간호하니, 오가며 만나면 먼저 인사해 주고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작업 중에도 건강상담실을 찾아오고, 어려운 가족이야기, 힘든 현장 일에 대하여 얘기하며 보건관리자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현장 보건관리자 근무였지만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좌우명이나 앞으로 이루고 싶은 바가 있으시다면?

좌우명 :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이다.

지금은 본사에서 근무하지만 본사의 보건조직(팀)과 보건관리자 조직체계가 수립된 후에는 꼭 다시 현장 보건관리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취미나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추천할 흥미분야 등)

여고 때부터 로망이었던 플루트를 배우면서, 동호회를 통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12년 입사 후 시간이 여의치 않아 요즘은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연습만 열심히 한다면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산업간호사 분들과 특히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산업간호사분들께 격려가 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산업현장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은 간호사이외에도 위생기사, 대기환경 기사 등 사업주가 편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간호사만큼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자격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건설업종의 산업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산업간호협회와, 선배 산업간호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15년부터 건설 현장 보건관리자 지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조업, 사비스업과는 다른 특징이 많겠지만 우리의 손길이 좀 더 필요한 산업현장 근로자입니다.

간호사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